

종부세 감소분 지방 전가 논란

종부세 폐지 불구 당장 재산세율 인상 어려워 지자체 세원 확충 구멍...균형발전 정책 차질

정부가 전체 국민의 2% 정도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종장기적으로 재산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종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급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역시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약 2조8천억원 중 1조1천억원이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1조7천억원이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이중 광주는 470억원을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217억원을 균형재원 명목으로 받았으며, 전남도 지방세수 감소분 29억원·균형재원 2천21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면 광주 687억원, 전남 2천241억원 등 매년 2조8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개편안 내용 중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의 과세 표준도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재산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부세·재산세를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도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되면 과표적용률이 산술적으로 올해에 비해 25%포인트 가량 상승하게 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재정부의 이번 조치에 책임 떠넘기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은 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혀 불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재산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안"이라며 "부동산 부자가 많은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내각은 보너스를 받은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종부세 개편안 찬반 격론

野 "강부자" 혜택...투기 부추겨 與 내부서도 '폐지' '신중' 엇갈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민노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조속한 폐지론과 신중론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으로 제4정조위원장이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내지는 사실상 폐기시키는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를 조정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다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면 혜택은 전체 세대의 2% 재산가에게만 귀속되며, 종부세율의 감소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출이 축소되어 지역간·계층 간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 폭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억원, 강민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

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라며 "종부세로 혜택을 받는 가구의 85%가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의회에서 이종구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라며 폐지를 요구했으며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세급과 행정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찬성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국노동총련의 김성태 의원은 "고유가 등으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자칫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가격 안정' '시장 정상화' '실수요자 혜택'

한, 부동산 대책 3대기조 제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격 안정 ▲시장 정상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세혜택 등 3대 기조를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골간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맡기되 무주택 서민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부동산 정책기조는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견지해왔던 행정 규제와 조세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과는 180도 상반된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선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해, "지역별로 주택수급 불균형 상태를 시정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경우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지방은 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공공 묶어놓았던 각종 행정규제 및 세금폭탄을 걷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조세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서민들이 월급을 주저해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주택담보대출, 보증자리론 등 서민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금융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경우 거의 세부담 없이 거주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여러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하라'

李 대통령, 실태조사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청회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 대통령은 법무부도 얘기했다"면서 "위법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9월1일 첫진도 주야반 교습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 급 공무원 합격 강좌

강좌 기초■강·행 교세관법검찰교보보복군소기전 무료08-09·정행무세원찰공정호전지무방술산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0월1일(주·야반 교습) (현재예약접수중)

6개월:90만원(교재17만포함) 주·야반+기초(美·英)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실함.

「無等」은 "꼭" 합격 할수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www.mdgosi.co.kr 222-4560

새로 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태환48세·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9월 16일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10월 6일 ~10월 18일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시작반 (주·야)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성인반·국비무료 교습 재직자반

전국 최다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학성진,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농산물품질관리사

우리농산물 지킴이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